

폐지 줍는 노인들 “장마철 일감 끊겨 생계 막막”

SOCIETY

2025년 6월 19일 목요일

젖으면 고물상에서 취급 안해... 허탕치거나 낙상 일쑤 파지값 1년만에 kg당 160원→50원... 폭염까지 이중고

“비 맞으면 폐지는 고물상에서 받지도 않습니다. 곧 장마가 시작되는데 고민입니다.”

오는 20일부터 광주·전남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파지나 신문을 주워 생계를 이어가는 노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여름 1kg에 160원이던 파지 가격이 지금은 50원으로 취급조차 하지 않기 때문이다.

18일 광주 북구 한 고물상 인근. 이날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위 속에도 폐지를 수거하는 어르신들의 손수레

가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이들의 등에는 물 흐르듯이 땀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고물상에 도착해서야 얼굴에 맺힌 굵은 땀방울을 소매로 훔친 임모씨(72)는 “1990년부터 30년 간 중식당을 운영하며 자식들을 키웠다”며 “몸이 아프고, 뜨거운 불 앞에서 오래 일해 눈도 안 좋아져 자식들의 권유로 가게를 접었다”고 말했다.

이어 “일을 하지 않고 집에만 있으니 건강 상태가 더 나빠졌다. 아내와는 오래 전에 이혼했고 자식들은 대전과 부산에 취



18일 광주 북구 신안동 한 도로에서 폐지 수집하는 어르신들이 손수레를 끌고 고물상으로 향하고 있다.

업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 이 일을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하루 두 차례(오전 5시~오후 7시) 폐지를 수거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께 고물상에 판매한 폐지는 80kg이지만

손에 쥐어진 금액은 고작 4000원 뿐이었다.

새벽에 나와 6시간 넘게 거리와 골목을 오가며 손수레를 끌었지만 수입은 커피 한 잔 값 수준이다.

하지만 임씨는 다가오는 장맛비를 더 걱정했다.

그는 “비오는 날에는 거리에 나와도 허탕이다. 고물상에서 비 맞으면 폐지는 받아주지 않는다. 넘어지기도 한다”고 하소연했다.

신안동 인근에서 폐지를 수거하는 이모씨(78·여) 역시 장마철에 대한 불안감을 내비쳤다.

10년 넘은 암 투병 끝에 완치 판정을 받은 이씨는 손수레 위에 올려둔 폐지를 정리하며 “비가 오면 아예 일을 못한다. 손수레가 미끄럽고 젖은 폐지는 아예 가져

가지도 못해 그날 수입이 제로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가 오면 그칠 때까지 하루 종일 창문만 바라봐야 한다”면서 “폐지를 팔리면 된다고 하지만 그럴만한 마땅한 공간도 없고 곰팡이가 피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폐지를 수집하는 어르신들은 여름철 더위와 장마에 이중고를 겪으면서 힘겨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지만 현실은 암울하다. 고물상의 사정도 녹록지 않다.

북구 중흥동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는 장영철씨(61)는 “평소엔 하루 10~15명이 폐지를 가져오지만, 장마철엔 1~2명 내외다”면서 “폐지라도 들고 오면 다행인데 요즘 가격으로 마진 10원 남기도 힘들다”고 토로했다.

양홍민 기자 yhb9792@gwangnam.co.kr

오늘의 날씨

☀️ 예보 05:18 🌧️ 날씨 00:32
☀️ 예보 19:50 🌧️ 날씨 12:55



공무원 버스 안내원 동원 ‘부글부글’ 광주 버스 파업 장기화 여파... 시, 9~18일 2교대 투입

12일째 이어지고 있는 광주 시내버스 전면 파업의 여파가 시청 공무원에게까지 미치고 있다.

광주시가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줄이고자 추진 중인 비상수송대책에 공무원들이 차출, 투입됐기 때문이다.

18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버스 파업 장기화로 인한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자 이날부터 전세버스 42대를 추가 투입했다.

이번에 투입되는 구간은 출퇴근시간대 배차 간격이 길고 혼잡도가 높은 노선이다. 긴급 투입된 전세버스에는 공무원이 동승해 정류소 도착 안내, 탑승객 승하차 등 이용객들의 불편 해소를 지원한다.

지난 9일부터 이날까지 투입된 전세버스는 총 54대로 오전, 오후 2교대 형태로 공무원들이 동승하고 있다.

이날 기준 100여명의 공무원이 전세버스 안내원으로 동원된 셈이다.

이와 같은 광주시의 비상수송대책에 공무원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실제 내부 게시판에는 ‘우리가 안내원이나’, ‘버스회사 측에서 임시 안내원을 고용하지 왜 공무원을 동원하느냐’ 등을 포함한 수십 개 글이 게시됐다.

불만이 거세지자 강기정 시장은 ‘시민이 믿을 구석은 공직자뿐입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통해 “힘들고, 때로 억울하더라도 시민의 발이 묶인 비상상황에 공직자가 나설 때다. 낯선 일이라 어렵고 부담도 가겠지만 조금 넓은 마음, ‘공직자의 마음’으로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하지만 불만은 계속되고 있다.

일부 직원들은 “무슨 일만 나면 차출되고 투입된다. 시민들을 위해 일하는 공직에 톱담고 있지만 해도 너무하다”는 등 원망 섞인 목소리를 냈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공무원들이 동원되고 있다. 직원들의 피해가 없도록 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yoy1404@gwangnam.co.kr

광주시민단체 “사회적 약자 차별 중단을”

광주시민사회단체가 비정규직,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구조적 차별 철폐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광주진보연대,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광주청년우니온 등 1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는 18일 오전 11시 광주 시청 앞에서 “2025 차별철폐 광주대행진”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형태의 차별과 배제에 맞선 연대 행동을 선포했다.

이들은 “노동자, 장애인, 성적지향, 피

부족, 나이 등의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헌법 제11조에 명시된 평등권 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비정규직 철폐 및 노동권법 개정, 노동권 보장과 노조법 2·3조 개정, 성평등 정책 실현, 차별금지법 제정, 성소수자·장애인·이주인에 대한 차별 반대, 기후정의 실현 정치다양성 확대 등이 포함된 10대 요구안을 핵심 의제로 제시했다.

양홍민 기자 yhb9792@gwangnam.co.kr



동구, 지속가능지방정부협의회 정기총회. 지속가능지방정부협의회(상임회장 임택 광주 동구청장)가 18일 대전 중구청에서 임택 광주 동구청장, 김계선 대전 중구청장, 박범민 금산군수, 함명준 고성군수,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열고 지역문제 해결 방안, 지속가능관광 활성화 방안 등 안건을 심의했다.

‘비상장 주식 투자 사기’ 10억 쟁건 일당 검거

계획적 범행 후 잠적·도주... 콜센터 운영자 등 3명 구속

SNS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상장이 확실한 비상장주식을 판매한다’고 속여 10억원을 쟁건 범죄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8일 사기, 자본시장법상 무인가 금융투자업 혐의 등으로 콜센터 운영자 30대 A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공범 3명도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서울 등에 인가 없는 금융투자업체 사무실과 콜센터 등을 차린 뒤 전국 피해자 26명으로부터 1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문자메시지, 모바일 메시지 등

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연락하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 또 그럴싸한 명함까지 제작하기도 했다.

이들은 범행 초기에는 실제 상장 예정인 비상장 주식을 제공해 피해자들의 신뢰를 쌓았다.

이후 피해자들이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하거나 사실상 투자 가치가 없는 ‘강동’ 비상장 주식 매수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으면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휴대전화번호 교체하거나 사무실을 이전하는 등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도주 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올해 2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 일당을 차례로 검거했다. A씨 일당이 범행으로 벌어들인 2억5400만

원도 압수했다.

경찰은 압수한 휴대전화 등에 대한 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여죄를 파악하는 한편, 또 다른 공범들과 자금세탁책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지 않고 주식을 매매하고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 등은 그 자체가 불법일 뿐만 아니라 사기 범행일 수 있다”며 “최근 사기범들이 ‘미끼용’ 비상장 주식을 매입하고 수익도 일부 보장하고 있다. 인가받은 회사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 통장 등으로 송금을 요구하면 100% 사기라고 생각하고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광주	☀️	21~30
목포	☀️	21~28
여수	☀️	20~25
순천	☀️	20~27
구례	☀️	19~30
광주	☀️	20~29
임도	☀️	20~28
진남	☀️	19~24
고동	☀️	18~28
진도	☀️	20~27

새벽시간대 차탈이한 10대

만년필... 새벽시간대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10대가 경찰에 붙잡혀.

18일 광주 북부경찰이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조사 중인 A군(17)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광주 북구 일대 주택가에 세워진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아, A군은 해당 기간 총 8차례에 걸쳐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지난 16일 A군을 광주 종합버스터미널에서 검거했다고.

조사 결과 A군은 새벽시간대 후 사적이 접하지 않은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훔친 금품은 A군의 인터넷 도박 자금과 유혹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은 동종범죄 전력과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죄를 조사 중이라고. 이산화 기자 goback@

DECK ROAD

예견 친환경 데크로드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
더 쾌적하고 안전하게 만듭니다

본사 경기도 파주시 신촌3로 1 | T.031-943-6114 | F.031-943-6698 | E.yekun@yekun.com

디자인연구소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78-16 2F | T.02-324-1140 | F.02-324-3270 | E.yekun@yekun.com

www.yekun.com